

조선후기 세시기속시(歲時紀俗詩) 고찰

-대보름 연작형(聯作型) 세시기속시를 중심으로-

양진조

(국립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연구실)

I. 머리말

II. 세시기속시 작품 현황

III. 대보름 세시기속시와 세시풍속의 양상

1. 풍농 기원
2. 기복(祈福)
3. 놀이

IV. 맺음말

일반적으로 조선후기 한시(漢詩)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민간의 풍속과 민중의 생활상을 상세하게 다룬 일련의 연작형 기속시(紀俗詩)가 다수 창작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속시는 그 소재(素材)와 내용에서 특정 지역의 풍토, 지리, 기후, 물산(物産),人情(人情), 세태(世態), 생업과 노동 등 민중의 생활 현장 전반을 두루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소재의 특징에 따라 기속시는 해당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생활상을 반영하고, 토속적 정서와 민중의 생활 감정을 중점적으로 형상화하였다. 이러한 기속시 중 소재적 측면에서 민중의 연중행사인 세시풍속을 읊은 시를 세시기속시(歲時紀俗詩)라 하는데, 조선후기에 이르면 명절이나 세시 절기에 벌어지는 세시풍속만을 소재로 연작형을 이룬 작품이 대거 출현하게 된다. 이는 실학의 발전과 민족의식의 고조, 신분질서의 동요와 민중 역량의 성장,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른 예술사 전반의 변모와 함께 특히 한시사(漢詩史)에 나타난 '조선시(朝鮮詩)' 정신의 대두(擡頭) 등이 역사적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작자의 다양한 체험과 견문, 민족과 민중의 현실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 등 작가적 체험과 의식성향이 세시기속시(歲時紀俗詩) 창작의 중요한 배경적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연작형 세시기속시는 584首都로 확인되며, 그중 대보름 풍속을 소재로 한 시는 178首都 전체의 1/3을 차지하는 분량이다. 이러한 작품들은 절기(節氣)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전래민속을 한시의 소재로 직접 수용함으로써 민족의 생활양식을 폭넓게 반영하고 있다. 특히 기층민의 현실 생활 현장에 밀착하여 그들의 질박하고 활기찬 삶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면서 분방 발랄한 민중상을 창조하고 민중의 염원과 삶의 애환을 그려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문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싸움', '노구반공양'이라는 풍속을 소재로 씌웠던 것도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주제어 : 세시기속시, 세시풍속, 대보름, 연작형, 한시

I. 머리말

일반적으로 조선후기 한시의 중요한 특징으로서 민요 취향의 대두, 민족정서의 수용, 조선시(朝鮮詩) 정신의 자각과 그 실천, 당대 현실의 반영과 비판, 서사적 지향 등이 지적되고 있다¹⁾. 그리고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작품들과 횡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면서 조선후기 한시사(漢詩史)의 중요한 경향으로 대두된 것에, 민간의 풍속과 민중의 생활상을 상세하게 다룬 일련의 기속시(紀俗詩)가 있다.

기속시는 그 소재와 내용에서 특정 지역의 풍토, 지리, 기후, 불산, 인정, 세태, 생업과 노동 등 민중의 생활 현장 전반을 두루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소재의 특징에 따라 기속시는 해당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생활상을 반영하고, 토속적 정서와 민중의 생활감정을 중점적으로 형상화하였다. 기속시의 기본적 창작 정신인 민풍의 반영은 『시경(詩經)』 이래 한시 창작의 중요한 전통을 이루고 있으며, 한국 한시사에도 최치원 이후 기속시가 지속적으로 창작되었다.

이러한 기속시 중 소재적 측면에서 민중의 연중행사인 세시풍속을 읊은 시를 세시기속시(歲時紀俗詩)²⁾라 하는데, 이러한 세시기속시는 고려시대 이규보(李奎報), 이색(李穡), 이승인(李崇仁) 등의 작품³⁾과 조선전기 김종직(金宗直), 조위(曹偉), 유희인(俞好仁) 등의 작품⁴⁾에서 단편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전통을 바탕으로 조선후기에 이르면 명절이나 세시 절기에 벌어지는 세시 풍속만을 소재로 연작형을 이룬 작품이 대거 출현하게 된다. 이는 실학의 발전과 민족의식의 고조, 신분질서의 동요와 민중 역량의 성장,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른 예술사 전반의 변모와 함께 특히 한시사(漢詩史)에 나타난 조선시(朝鮮詩) 정신의 대두 등이 역사적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다⁵⁾. 또한 작자의 다양한 체험과 견문, 민족과 민중의 현실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 등 작가적 체험과 의식성향이 세시기속시 창작의 중요한 배경적 요소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조선후기 세시기속시 작품들 중 대보름 관련 세시기속시 작품들을 중심으로 조선후기 세시풍속의 양상과 민중들의 생활상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이동환, 1978, 「조선후기 한시에 있어서 민요취향의 대두」 『한국한문학연구』 3·4집, 한국한문학회
- 민병수, 1994, 「조선후기 한시의 새로운 경향에 대하여」 『한국한시연구』 2집, 한국한시학회, 대학사
- 2) 세시기속시라는 명칭은 홍석보가 서울의 세시풍속을 총 126수의 절언절구로 읊은 『도하세시기속시』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있다. 이런 세시기속시는 김명순의 「조선후기 기속시 연구」 박사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정리되었으며, 국립민속박물관의 「조선시대 세시기」 I·II에서 자료가 집대성되었다.
- 3)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문헌으로 보는 고려시대 민속』
- 곽진, 1990, 「목은 이색의 풍속시 고찰」 『민족문화』 13집
- 4) 황위주, 1989, 「조선전기 약부시 연구」, 고려대 대학원 박사논문, pp.104~106 참조.
- 5) 김명순, 1996, 「조선후기 기속시 연구」, 경북대 대학원 박사논문, pp.9~12 참조.

II. 세시기속시 작품 현황

세시풍속은 1년을 단위로 주기적으로 전승되어 온 민중의 생활사이다. 여기에는 월별(月別), 절후(節候), 명절(名節)에 따른 전통적 민속신앙, 민속놀이, 구비전승, 의식행사, 풍속습관, 의식주, 생업 활동 등이 두루 포함되어 있다⁶⁾. 우리나라의 세시풍속은 벼농사 중심의 농경문화 유산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풍속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하여 세시풍속은 달마다 명절을 정하여 힘들고 고생스러운 농민에게 휴식을 취하도록 하며, 놀이를 즐기도록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생활과정에 리듬을 주어 활동적인 노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 또한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결속과 일체감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세시풍속만을 소재로 연작형을 이룬 작품들이 조선후기에 이르면 대거 출현하게 된다.

번호	작자	생몰년	작품명	작품수
1	이하곤(李夏坤)	1677~1724	원조희작조해체(元朝戲作詠諧體)	7수
			월석(元夕)	12수
2	이안중(李女中)	미상	비년사(肥年詞)	4수
			상원요(上元謠)	5수
			우오절(又五絶)	3수
3	이덕무(李德懋)	1741~1793	세시잡영(歲時雜詠)	22수
4	마성린(馬聖麟)	미상	농제속담(弄題俗談)	14수
5	조수삼(趙秀三)	1762~1849	상원죽지사(上元竹枝詞)	15수
6	김려(金 釵)	1766~1821	상원리곡(上元俚曲)	25수
7	홍석모(洪錫謨)	1781~1857	도하세시기(都下歲時記)	126수
8	조운종(趙雲從)	1783~1820	세시기속(歲時記俗)	40수
9	유만공(柳晩恭)	1793~1869	세시풍요(歲時風謠)	200수
10	권용정(權用正)	1801~?	세시잡영(歲時雜詠)	25수
11	김형수(金迥洙)	미상	농가십이월속시(農家十二月俗詩)	12수
12	황현(黃 玿)	1855~1910	상원잡영(上元雜詠)	10수
13	최영년(崔永年)	1856~1935	명절풍속(名節風俗)	64수
	계			584수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후기 연작형 세시기속시는 이하곤(李夏坤)의 원조희작조해체(元朝戲作詠諧體)에서 최영년(崔永年)의 명절풍속(名節風俗)까지 모두 584수이다. 적게는 3수에서 흥

6) 인권환, 1997, 「세시풍속의 개념과 역사적 변화」 『한국의 세시풍속 I』, 국립민속박물관, p.13.

석모(洪錫謨)의 도하세시기(都下歲時記) 200수까지 다양한 연작형의 시들이 나타난다. 이들 세시기속시의 소재는 대부분 민중의 생활주변에서 취한 것들이다. 홍석모와 유만공의 작품에는 정초를 중심으로 궁중의 풍속을 다룬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서민들의 풍속에 치중하고 있으며, 나머지 경우에는 궁중의 풍속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홍석모와 유만공은 『동국세시기』처럼 서울과 전국의 세시풍속을 망라하여 집대성하였기 때문에 궁중의 풍속이 포함되었으며 대개는 기본적으로 관심의 방향이 시정의 서민과 민중의 생활상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다. 세시절기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민속을 한시의 소재로 직접 수용함으로써 민족의 생활양식을 폭넓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계	합계
1월	설날	7	4	15	4			24	7	30	2	1		5	99	315
	정초							4	1	6	2			1	14	
	입춘							2	1	5	1				9	
	대보름	12	8		6	15	25	29	8	42	9		10	14	178	
2월	월중							2		1	11			1	15	13
	초하루							3		1				1	5	
3월	월중							1		4		1		2	8	24
	삼짇날							1	1	7		1		1	11	
4월	한식 청명							3	1	8				1	13	29
	초파일							2	1	17		1		3	24	
5월	월중							5							5	30
	단오							10	5	8		1		6	30	
6월	유두							4	1	6		1		1	13	24
	월중							2	1	6				2	11	
7월	칠석							1		3		1		1	6	14
	백중							1	1	3				1	6	
	월중													2	2	
8월	추석							2	1	8		1		1	13	13
9월	중구							2		5		1		2	10	10
10월	월중							7	1	6		1		4	19	19
11월	동지							4	2	7		1		5	19	21
	월중							1						1	2	
12월	납일							4	2	5				1	12	66
	월중							3						1	4	
	그믐			5	4			5	6	22		1		7	50	
기타			2					4							6	6
합계		19	12	22	14	15	25	126	40	200	25	12	10	64	584	584

위의 표는 584수의 세시기속시를 월별·절기별로 분류해 본 것이다. 12월과 대보름을 포함한 정월의 풍속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무렵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기로, 1년의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며 길흉을 점치고 복을 맞고 재앙을 물리치기 위해 각종 세시풍속이 집중적으로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월 세시풍속을 소재로 한 시는 315수로, 전체 세시기속시 중 절반이 넘는다. 그 중 대보름을 소재한 시는 178수로 전체 세시기속시의 1/3에 해당한다. 그만큼 조선후기에 있어서도 민중들에게 대보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대보름 세시기속시와 세시풍속의 양상

정월 보름은 우리 세시풍속에서 비중이 크고 뜻이 깊은 날이기 때문에 ‘대보름’이라고 특별히 일컫는다. 설날이 1년을 시작하는 날로서 당연히 의의를 지녀왔지만, 달의 움직임을 표준으로 삼는 음력을 사용하는 사회에서는 첫 보름달이 뜨는 대보름날이 보다 더 중요한 의의를 지닐 수 있다. 현전 세시풍속 중 대보름 세시풍속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도 이러한 전통문화의 유산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대보름 풍속이 우리 민속에서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방증하기도 한다.

1. 풍농 기원

정월 대보름에는 예나 지금이나 기풍과 관련된 풍속이 많이 행해진다. 따라서 세시기속시에는 농사의 풍농을 기원하는 작품들이 많은 편이다. 농민은 전통사회의 생산적 토대가 되었고, 1년 운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농사의 길흉이었다. 그래서 정초나 대보름에는 한해 농사를 점치고 풍년을 기원하며, 연중에는 자연 현상을 농사와 관련지어 점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 풍농 기원 세시풍속은 고대 농경사회의 풍년기원 의례의 전통이 면면히 전해진 것으로 농촌 공동체의 집단 정서가 짙게 담겨 있는 민족 고유의 생활양식인 것이다.

열두 번 보름 중에 정월 대보름이 으뜸이니
은 두꺼비 밝게 떠올라 황혼을 깨뜨리네
늙은 농부 달의 색깔을 보고 수확을 점치니
붉은 색이면 가뭄 들고 흰 색이면 흉수 나네

十二望中首上元
銀蟾晃朗破黃昏
老農看候占秋稼
水旱如期赤白痕⁷⁾

7) 조운중, 「세시기속」 상원조

풀 엮어 만든 횃불 발강게 타오르고	束草爲炬火燐紅
저물녘 달 맞으며 동쪽 향해 절하네	黃昏迎月拜向東
올해의 달 두텁지도 얇지도 않으니	今年月形無厚薄
틀림없이 온 세상에 풍년이 들겠네	必是豐差八路同 ⁸⁾

촌 늙은이 거나하게 술 마신 저녁 무렵	村翁斗酒夕陽天
취한 채 높은 곳에 올라 둥근 달 살펴보네	扶醉登高看月圓
예전 경험으로 두터움과 얇음 높낮이 살펴지만	厚薄高低前驗在
산골농사가 어찌 들농사의 수월함만 하리오	畝農爭似野農便 ⁹⁾

위의 세 시는 달점과 관련된 시들이다. 달점치기는 지금도 전국에서 골고루 전승되는 세시풍속으로 달의 빛깔·모양·두께·떠오르는 위치 등을 보고 그 해 농사의 풍흉을 알아보는 풍속이다. 첫 번째 시는 ‘늙은 농부는 정월 대보름날 달의 색깔을 보고 가을 수확을 점친다. 달빛이 붉으면 가물 조짐이고 달빛이 희면 홍수가 날 조짐으로,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설명과 함께 순조 때 문신인 조운중(趙雲從)이 읊은 시이다. 열두 보름 중에서 대보름이 으뜸이라고 하였고, 그 달을 은 두꺼비에 비유하면서 달점치기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두 번째 시는 서화가로 해서와 초서에 능한 마성린(馬聖麟)의 작품이다. 정월 대보름날 저녁에 떠오르는 달의 모습이 풍년을 예고하는 모습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횃불을 밝히고 동쪽을 향해 절을 하는 광경을 묘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작가 역시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세 번째 시는 문장과 경술(經術)로써 한 시대에 이름을 높이 날린 담정(潭庭) 김려(金縷)의 「상원이곡(上元偈曲)」에 실려 있는 것으로, 달맞이하면서 그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는 모습을 소재로 하고 있다. 거나하게 술에 취한 시골의 늙은 농부가 높은 곳에 올라 달을 보며 두터움과 얇음, 그리고 달의 높낮이를 살펴보지만, 들농사에 비해 힘든 산골의 농사짓기를 걱정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달점치기 풍속은 세시기속시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소재이다. 그래서 이하곤(李夏坤)의 「원석(元夕)」에서는 동쪽 고개 위로 솟아오르는 달을 바라보면서, 흉년이 심했던 작년에 비하여 달이 조금 나은 모습으로 떠오른다고 하며, 작년보다는 올해 농사가 나올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기대¹⁰⁾를 읊었고, 이안중(李安中)의 「상원요(上元謠)」에서는 정월 대보름날 저녁이 되면 마을의 노인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 달의 어떤 모습으로 떠오를까 기다리며 그 해의 풍년을 기원한다¹¹⁾고 했다. 또한 유만공(柳晩恭)은 달이 북쪽에 가까우면 산골짜기에 풍년이 들고 조금 남쪽에

8) 마성린, 「농제속담」 상원조 5

9) 김려, 「상원리곡」

10) 이하곤, 「원석」 2. “奔走農人候月生 一年今夜卜西成 較却前春差勝似 直從峰巒嶺樹明”

11) 이안중, 「상원요」 2. “村南村北老農叟 倚杖扶人路左右 今夜月高如去年 峽中農事又大有”

가까우면 해변이 풍년 든다고 하였다¹²⁾. 이렇게 세시기속시에 달점을 소재로 한 시가 많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고 또 갈망하는 것이 바로 풍년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두텁게 늘어붙은 겨에 모지라진 몽당키	敗箕三尺粘糠厚
어린 종년 들고서 외양간으로 가는구나	小婢提向牛欄口
한 머리엔 흰쌀밥 또 한 머리엔 나무새요	一頭白飯一頭菜
목화씨 한 움큼은 미숫가루 한가지라	棉子一掬如粉糶
늙은 소머리 들어 밥 냄새 맡고는	老牛舉首聞飯香
혀 내밀어 코 핥으며 바삐 뛰어 일어나네	出舌舐鼻跑起忙
아교 같은 침 흘리며 물끄러미 쳐다볼 뿐	頑涎如膠注睛久
냄새만 맡으며 선뜻 먹으려 하지 않더니	然疑四嗅未遽嘗
단숨에 혀를 뻗쳐 비로 쓸 듯 먹어 치우고	須臾張舌如帚掃
주둥이 한 번 휘두르며 키를 밀어 넘어뜨리네	揮吻一磨推箕倒
어린 종년 깔깔대며 소를 보고 웃으니	小婢噱嚙向牛笑
이는 소가 성미가 순해서가 아니라네	不是牛性無歹好
올해는 틀림없이 전에 없던 풍년이 들것이니	今歲定應豐無比
목화는 눈처럼 쌓이고 벼는 구름같이 너울대며	木綿雪積禾雲委
천 이랑에 배추농사 썩대보다 흔하고	千畦齒葉賤於蒿
나물국 대접에 넘치고 서릿농어 맛나리	羹芼溢椀霜鱸美
명년 오늘 보름날은 팥밥 지어서	明年此日炊豆飯
소에게 먹이는 일 소홀히 해서는 아니되리	報賽牛靈應不晚 ¹³⁾

구한말의 시인이자, 절명시(絶命詩)로 유명한 황현(黃玹)이 소밥주기 풍속에 대해 읊은 시이다. 구체적 사물의 제시와 사실적 묘사를 통하여 농가의 대보름 풍속을 생생하게 그려 보여주고 있다. 소밥주기는 정월 대보름 아침에 소에게 밥과 나물을 갖다 주어 소가 밥을 먼저 먹으면 그해 풍년이 들고, 나물을 먼저 먹으면 흉년이 든다고 여기는 풍속이다. 소는 가축의 하나이지만, 일찍부터 생구(生口)라 불릴 만큼 식구에 버금가는 특별한 대우를 받아왔다. 정월 대보름날을 특별히 소의 생일이라고 하여 소를 위해 주었다. 이러한 풍속은 농사를 짓는데 으뜸가는 소를 위함으로써 소가 건강하게 자라고 농사일을 잘하여 궁극적으로 한 해 농사가 풍년들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소를 식구처럼 대하듯 일년 중 하루인 대보름을 맞아 아침 한 끼를 사람처럼 대접하려는 농민의 소박한 심리를 담고 있다.

12) 유만공, 「세시잡영」 원석조 “近北豊山峽 差南愔海邊”

13) 황현, 「상원잡영」2, 사우(飼牛)

비린 고기 벌려 놓고 생선으로 폐백 삼으니	藉以猩氈贄尺鱗
농가의 좋은 날 경인일에 달려 있네	農家吉日在庚寅
백옥 같은 고양이 얼굴 흰 토끼처럼 환하고	羆奴玉面如霜兔
판자 문에 둥근 달빛 새로이 비춰 드네	板戶新穿月一輪 ¹⁴⁾

‘영묘(迎貓)’라고 제목을 붙인 칠언절구의 시이다. 영묘는 고양이신 맞이하기라는 세시풍속으로 1년의 풍흉을 점치는 세시풍속이다. 고양이신은 ‘고양할매(猫婆)’를 뜻하며, 정월 초하룻날 하늘에서 일찍 내려왔다가 첫 소날, 즉 상축일에 올라간다고 한다. 지상에 내려올 때 한 말의 곡식을 가지고 와서, 하루에 한 되씩 소비하며 지내는데, 이를 만에 올라가면 8되의 곡식을 남기지만 열 하루 만에 올라가면 한 되가 모자라 꾸어 먹게 된다. 상축일이 빨리 돌아와 고양할미가 곡식을 남기는 해에는 풍년이 들고, 부족해서 꾸어다 먹고 가는 해는 흉년이 든다고 한다. 이것으로 보리농사의 풍흉을 점치는데 현재 주로 전라남도 지방을 중심으로 전승되는 속신이다.

기와와 조약돌 전날 밤에 많이 주워다가	瓦礫前宵拾得多
닭 울 때 가지에 끼워 나무 시집보내네	鷄鳴嫁樹占交柯
해마다 늙은 살구나무 새서방 맞지만	年年老杏迎新婿
사주에도 없는 자식을 어찌 하겠느냐?	四柱無兒奈爾何 ¹⁵⁾

과일나무 시집보내기라는 풍속을 노래한 김려(金禮)의 작품이다. 먼저 제1·2구에서는 과일나무를 시집보낸다 하여, 새벽에 과일나무의 가지 사이에 돌맹이를 끼워놓는 풍속을 묘사하면서, 풍작을 바라는 민중의 소망을 나타내었다. 그런데 제3·4구에서는 사주에 자식이 없는 늙은 살구나무가 해마다 새서방을 만난다는 유머러스한 상황을 만들어 내었다. ‘사주팔자에 없는 자식’이라는 통속적 시어를 사용하여 나무도 인간적인 정을 가지고 대하는 민중의 소박한 심성을 여실하게 그려내고 있다. 민중적 시선으로 민중적 정감을 익살스럽게 표현하였다.

2. 기복(祈福)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특히 한 해가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그해 내내 복되고 운수 좋기를 바라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래서 정초뿐만 아니라 대보름에도 복을 기원하는 여러 풍속

14) 조수산, 「상원죽지사」 영묘(迎貓)

15) 김려, 「상원리곡」 17

들을 행하며, 이러한 풍속들이 세시기속시에 나타나 있다.

곳곳에서 안택 굿하는 북소리 요란하니	處處賽神巫鼓騰
농가의 즐거운 일은 한 해 수확에 달려있네	田家樂事係年登
갈래머리 아이들도 풍년 기원할 줄 알아서	叉頭亦解祈豐歲
밤에 일어나 조왕등에 기름을 더하네	夜起添油祭竈燈 ¹⁶⁾

새해 밝을 때까지 경 읽는 판수	新年誓誦達天明
신 맞아 재복 빌며 북을 울리네	財福迎神磬鼓鳴
상서롭지 못한 것들 냉큼 사라지라고	急除不祥如律令
집집마다 외어 대는 안택경과 옥추경	家家安宅玉樞經 ¹⁷⁾

안택은 독경을 하는 법사가 가정의 여러 신령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집안의 평안을 빌기 위하여 행하는 일종의 앓은굿이다. 동국세시기 정월조에는 “소경을 불러다가 보름 전날부터 안택경을 읽으며 밤을 새운다. 액을 막고 복을 비는 까닭이다. 이달이 다 가도록 계속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첫 번째 시에서는 안택 굿하는 소리가 요란하지만, 그러한 것은 1년의 풍년을 기원하는 뜻이라고 했다. 아울러 갈래머리 아이들도 풍년을 기원하며 부엌에 밝혀 놓은 등불이 꺼질까 염려하여, 조왕등에 기름을 더 붓는다고 하였다. 두 번째 시에서는 밤새도록 경 읽는 판수가 북을 울리면서 잡귀를 물리치고자 안택경과 옥추경을 읽는 모습을 담백하게 그려내고 있다. 마지막에서는 이런 안택이 집집마다 행해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새벽 빛 속에 처음으로 숲 가득한 새 지저귐 들으니	曉光初聽滿林噪
문밖에 두루 나는 제호조와 소쩍새 소리	巡戶提壺雜鼎小
스스로 움직이는 하늘 기운을 따라 점칠 수 있으니	自動天機從可占
피꼬리 소리는 풍년 알리는 그 소리	一聲黃雀豐年鳥 ¹⁸⁾

조선시대 최후의 서리(胥吏) 시인으로 죽지사(竹枝詞)에 있어 마지막 흔적을 남긴 풍류객이라 평가받는 최영년(崔永年)의 <청효조(聽曉鳥)>라는 제목의 시이다. “옛 풍속에 정월 보름날 시험 삼아 새소리를 듣는데 피꼬리가 먼저 울면 큰 풍년이 든다고 여겼다. 이것을 ‘새소리듣기’ 라고 한다”

16) 이하곤, 「월석」 4

17) 홍석보, 「도하세시기」 58

18) 최영년, 「명절풍속」

라는 설명이 추가되어 있다. 이러한 청참(聽讖)은 정월 초하룻날이나 대보름 새벽에 거리에 나가서 짐승의 소리를 듣고 한해의 신수를 점치는 신수점의 하나이다. 『동국세시기』에 보면 “꼭두새벽에 거리로 나가 어떤 방향에서 들려오든지 관계할 것 없이 처음 들려오는 소리로 1년간의 길흉을 점친다. 이를 청참이라 한다. 생각건대 연경(燕京：北京) 풍속에 제야에 부엌 앞에서 방향을 일러달라고 빈다. 그리하여 부엌귀신이 일러 주는 방향을 따라 거울을 가지고 문 밖으로 나가 거리에서 들려오는 첫 번 말을 듣고 새해의 길흉을 점친다. 우리나라 풍속도 그와 같다.”고 하였다. 이러한 청참은 설날에 행해지기도 하고 대보름에도 행해진다. 예를 들어 까치소리를 들으면 그해 길하고, 까마귀 소리를 들으면 그해 불길하다고 한다. 또한 송아지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 길조이고, 개가 짖는 소리를 들으면 그해 도둑이 많다고 믿는다. 이러한 점복의 행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조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한해를 맞이했던 옛 어른들의 슬기를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직성 든 재앙 물리치기 위한 방법	災直星宮禳是謀
아이들이 문 앞에서 처용을 요구하네	踵門童隊處容求
동전 몇 닢 넣어서 짚 인형을 내놓으면	持錢數葉藁人出
밤새도록 온 거리에 채찍소리 요란하네	竟夜鞭聲九陌頭 ¹⁹⁾

집집마다 직성 따라 길흉을 따져보고	家家直星付吉凶
한밤중 네거리에 액막이를 던지네	中夜投厄四道通
수많은 아이들 무리 지어 노는 곳	無數兒童成群處
다투어 제웅 치고 불 속에 태우네	爭打蠶俑燒火中 ²⁰⁾

첫 번째 시는 조운종(趙雲從)의 「세시기속(歲時記俗)」에 실려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시는 마성린(馬聖麟)의 「농계속담(弄題俗談)」에 실려 있는 것으로 제웅 치기를 묘사하고 있다. 제웅은 짚으로 만든 사람 모양의 인형을 말한다. 남자의 경우에는 제웅의 머리카락이나 배속에 동전과 생년월일을 쓴 종이를 집어넣어 14일 밤 초저녁에 길이나 개천에 버리고, 여자의 경우에는 종이에다가 당사자의 얼굴을 그려 돈을 넣고 싸서 길이나 개천에 버려서 액을 막는다. 이때가 되면 마을의 여러 아이들이 문 밖으로 몰려 나와 제웅을 내놓으라고 소리쳐서 제웅을 얻으면, 머리카락이나 배 부분을 파헤쳐 돈만 꺼내고 나머지는 길에서 버린다.

늙은 할미 습관적으로 승방을 드나들며	虔婆行徑慣僧房
----------------------	---------

19) 조운종, 「세시기속」, 상원조

20) 마성린, 「농계속담」, 상원조

보살들의 공양미를 너도나도 내게 하네
 밀초와 후추 그리고 노구반을 갖추어
 약사전 안으로 들어가 향을 태우네

扮出齊齊菩薩瓶
 蠟燭胡椒爐口飯
 藥師殿裏去燒香²¹⁾

“이날 할멈들은 여염집 부녀자들을 피어내어 절에 가서 향을 사르는데, 이를 ‘노구반공양(爐口飯供養)’ 이라고 한다.”²²⁾라는 설명과 함께 실려 있는 시이다. 노구반공양은 향불공양을 이르는 말로, 향내는 부정을 없애고 몸과 마음을 맑게 함으로써 신명(神明)과 통한다 하여 옛날부터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제사의식에서 먼저 향불을 피웠는데, 이것을 분향(焚香)이라고 하며 지금도 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노구반공양 풍속은 다른 세시기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내용이다.

집집의 조밥은 무엇하는 것인가?
 수직성 가진 사람 베풀기를 좋아하여
 옛 우물에 물고기 없건만 밥을 뿌리니
 차라리 천하를 방생하는 연못으로 파게 함이 어떠리?

家家粟飯問何爲
 水直星²³⁾人好捨施
 古井無魚猶撒食
 寧開天下放生池²⁴⁾

“옛 풍속에 정월 보름날에 물고기들이 먹으려는 뜻에서 조밥을 우물에 뿌렸다. 이것을 ‘어부심’ 이라고 한다.”라는 설명과 함께 <살어식(撒魚食)>이라고 제목을 붙은 시이다. 지금도 경기 남부지역이나 충청도의 일부 지역에 전승되고 있는 어부심 풍속은 정월 14일 저녁이나 대보름에 아낙네들이 창호지에 조밥을 싸서 강에 뿌리면서 절을 한다. 이러한 어부심은 자식들이 한 해 동안 건강하고 1년 12달 액운 없이 불 조심하라는 뜻에서 행한다고 한다.

이러한 기복에 관한 세시풍속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조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한해를 맞이했던 옛 어른들의 슬기를 엿볼 수 있게 해준다.

3. 놀이

21) 김려, 「上元偈曲」 7

22) 是日度婆誘引閭閻婦女 燒香佛寺 名曰爐口飯供養

23) 수직성(水直星) : 사람의 운명을 맡아 본다는 별인 9개의 직성 가운데 하나이다. 9개의 직성은 제용직성(또는 나후직성, 처용직성) · 토직성(土直星) · 수직성(水直星) · 금직성(金直星) · 화직성(火直星) · 목직성(木直星) · 일직성(日直星) · 월직성(月直星) · 계도직성(計都直星)이다. 이 직성이 차례로 돌면서 사람의 1년 운명을 정한다고 한다.卜說에서는 그 나이가 되는 사람은 厄에 걸린다고 하며, 厄年에 든 사람은 정월 대보름에 액막이를 하여 그 직성의 액을 풀어야만 한 해 운수가 잘 풀리게 된다고 하였다.

24) 최영년, 「명절풍속」 17

대보름에 행해지는 놀이는 정초의 놀이와 확연히 구분되지는 않는다. 세시기속시 178수에 소재로 등장한 놀이는 줄다리기, 골패놀이, 널뛰기, 돌싸움, 바람개비놀이, 불싸움, 옷놀이, 구슬치기, 돌매달기, 고누, 돈치기, 쥐불놀이, 다리밟기 등이 있는데, 이중 대부분이 정초에 행해지기도 한다. 아무래도 대보름 놀이는 다리밟기라고 할 수 있으며, 세시기속시 중 가장 많은 놀이의 소재로 등장한다.

공복 ²⁵⁾ 새겨진 긴 다리 몇 곳이나 되는지	蛇蟻長橋幾處崑
갓 개인 맑은 하늘에는 티끌 한 점 없네	新晴天氣澗無埃
구름처럼 모인 남녀 많은 물리를 이루어	如雲士女成羣隊
다리밟기 하고나면 온갖 병 없어진다네	百病消磨走一回 ²⁶⁾

달 밝은 대보름날 밤은 깊어가고	上元明月夜迢迢
남북으로 통하는 몇 갈래의 길	北里南村路幾條
36개의 다리를 모두 다 밟지만	三十六橋俱踏遍
그 중에 광통교로 먼저 나아가네	就中先數廣通橋 ²⁷⁾

첫 번째 시는 김려(金禮)의 시로, “대보름날 밤 남녀가 무리를 지어 광통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안의 돌다리들을 두루 밟아 건너는데, 이것을 ‘온갖 병 쫓기’ 라고도 하고 ‘다리밟기놀이’ 라고도 한다.”²⁸⁾고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는 권용정(權用正)의 시로 여러 다리 중에서 다리밟기는 광통교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였다. 이렇듯 다리밟기는 성안의 남녀들이 모두 모여 성대하게 벌이는 놀이로서, 나라에서는 이 날 밤에 통행금지를 해제하여 백성들이 마음껏 정월 대보름 밤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다리를 건너는 방법은 지방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 다리 3개를 건너기도 하고, 제일 큰 다리나 가장 오래 된 다리를 자기 나이 수대로 왕복하기도 한다. 대보름날 너무 많은 사람이 나와 매우 복잡하였으므로 부녀자들은 16일에 다리밟기를 하고, 양반들은 상민들과 몸을 부딪치는 것이 싫어 14일에 다리밟기를 하였는데, 이것을 ‘양반 다리밟기’ 라고 한다.

말갈기와 소꼬리 털 섞어서 꼬아 잇고	馬鬣牛尾錯聯
기와조각 매달고 줄을 엮어 겨룬다네	縛來瓦片鬪交絃

25) 공복 : 중국 청(淸)나라의 『천록식여(天祿識餘)』에 “세속에 용자(龍)子 9종류가 있는데, 그 가운데 6번째가 공복으로, 분을 좋아하여 다리난간에 새긴다.” 라고 하였다.

26) 김려, 「상원리곡」 11

27) 권용정, 「세시잡영」 12

28) 김려, 「상원리곡」 11. “是夜士女成羣 自廣通始 踏遍城內石橋 稱日走百病 或曰踏橋游”

내가 센지 네가 약한지 따져서 무엇하랴
먼저 끊는 쪽이 상대방 이기는 것을

吾強爾弱何須較
先斷方稱勝一偏²⁹⁾

‘교현(交絃)’이라는 실싸움을 소재로 김려(金瞭)가 읊은 시이다. 실싸움은 말의 갈기와 소의 꼬리 털을 섞어서 꼬아 이은 다음, 그 끝에 기와 조각을 매달고 줄을 서로 엇갈려 당기면서 상대의 끈을 끊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는 다른 문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대보름 놀이이다. 일반적으로 3월에 많이 행해지는 풀싸움과 놀이방식은 비슷하지만, 놀이의 재료와 시기, 그리고 끝에 기와 조각을 매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IV. 맺음말

기속시는 그 소재(素材)와 내용에서 특정 지역의 풍토, 지리, 기후, 물산(物産), 인정(人情), 세태(世態), 생업과 노동 등 민중의 생활 현장 전반을 두루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소재의 특징에 따라 기속시는 해당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생활상을 반영하고, 토속적 정서와 민중의 생활 감정을 중점적으로 형상화하였다. 이러한 기속시 중 소재적 측면에서 민중의 연중행사인 세시풍속을 읊은 시를 세시기속시(歲時紀俗詩)라 하는데, 조선후기에 이르면 명절이나 세시 절기에 벌어지는 세시풍속만을 소재로 연작형을 이룬 작품이 대거 출현하게 된다.

이러한 연작형 세시기속시는 584수로 확인되며, 그중 대보름 풍속을 소재로 한 시는 178수로 전체의 1/3을 차지하는 분량이다. 이러한 작품들은 세시 절기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전래민속을 한 시의 소재로 직접 수용함으로써 민족의 생활양식을 폭넓게 반영하고 있다. 특히 기층민의 현실 생활 현장에 밀착하여 그들의 질박하고 건상한 삶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면서 분방 발랄한 민중상을 창조하고 민중의 염원과 삶의 애환을 그려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문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싸움’, ‘노구반공양’이라는 풍속을 소재로 삼았던 것은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29) 김려, 「상원리곡」 15

참고문헌

1. 자료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3, 『경기도 세시풍속』 등 각도 세시풍속(9권)
국립민속박물관, 2003~2005, 『조선대세시기』 I · II
국립민속박물관, 2004, 『한국세시풍속사전-정월편』
유만공 원저 · 임기중 역주, 1993, 『우리 세시풍속의 노래』, 집문당
홍석모 편저 · 진경환 역주, 2003, 『서울 · 세시 · 한시-都下歲時紀俗詩』, 보고사

2. 논문

- 곽진, 1990, 「목은 이색의 풍속시 소고」 『민족문화』 13
김경미, 1987, 「대보름 풍속시 상원리곡 25수에 대하여」 『우리문학연구』 제6 · 7집
김명순, 1996, 「조선후기 기속시 연구」, 경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황위주, 1989, 「조선전기 악부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동환, 1978, 「조선후기 한시에 있어서 민요취향의 대두」 『한국한문학연구』 3 · 4집, 한국한문화회
민병수, 1994, 「조선후기 한시의 새로운 경향에 대하여」 『한국한시연구』 2집, 한국한시학회, 태학사
이상주, 1995, 「담헌 이하곤의 풍속시에 대한 고찰」 『어문논총』 11집

**A study on Sesi Keesokshi in the late Jeosun Period
-Focusing on Serial Sesi Keesokshi-**

Yang Jin-jo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One of the distinguishing features of late Jeosun's Hanshi (poem in Chinese) is the numerous creation of Yeonjachyung Keesokshi (serial poem on folklore) which describes the folk manner and folk way of life in detail.

Keesokshi's subject matter is the folklike in general including local features, geography, climate, local production, humanity, social conducts, and daily labor for living as well. By its material characteristics, Keesokshi reflects detailed life conditions of the society members in each levels, and represents the local customs as well as the folk emotions. Among the several kinds of Keesokshis, a Sesi Keesokshi focuses only in reciting the folk customs on each seasonal festival days, and the great numbers of such serial poems appear during the latter part of the Jeosun Dynasty. Its overall background is the transition of artistic trend which came after many social changes such as expansion of realism, uprising national consciousness, shaken status system, and the rising of 'Jeosun si' motives in the Hansi history. Moreover, each writers' various experiences and their interests in the reality and critical minds of common people contributed a crucial roll in creation of Sesi Keesokshi.

178 of the 584 remaining serial Sesi Keesokshi are written particularly about the folk customs in The Grand Full Moon Festival (the first full moon of a year by the lunar calendar). These Hanshis widely reflect the common ways of living by directly accepting the seasonal folk customs as the subject matters. Especially, close to the reality, these

poems positively express the people's simple vigorous lives and create unrestrained lively image by describing the joys and sorrows of the folk existence along with their craving. Also, it is notable to have customs such as 'Shil-Ssa-Um' and 'No-gu-ban-kong-yang' as the subjects for its rarity in other literatures.

Keywords : Sesi Keesokshi(Poem on Seasonal customs and folklore), Seasonal customs, The Grand Full Moon Festival, Serial poem, Poem in Chinese